

제17호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저자

전 수 민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Email: smjeon@koica.go.kr)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협력전공 박사과정 수료

▶ 주요 연구 실적

- ASEAN+3's Lessons from EU Integration, 유럽연구 제 30권 2호(공저), 한국유럽학회, 2012

본 연구보고서는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초록	1
Abstract	3
1. 서론	6
2. 지식공유와 개발협력	8
2.1. 지식공유의 중요성	9
2.2. 지식공유와 개발협력	10
2.3. 국내외 지식공유분야 추진현황	11
3. G20 서울개발의제와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	27
3.1. 정상회의 시기별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	31
3.2. 분야별 이행 현황	35
3.3. 기구별 이행 현황	39
4.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41
5. 결론	47
참고문헌	49
첨부	52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 G20 서울개발의제의 지식공유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지식공유 분야의 추진현황을 분석하며,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지식공유 분야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였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선진국과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의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성장과 연계된 9가지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 중 하나가 지식공유이다.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는 새롭게 나타난 용어가 아니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식공유를 통해 개도국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 유엔개발계획 및 JICA를 선정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추진하는 사업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식공유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도국간 협력을 강조하는 남남 및 삼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G20 서울개발의제 발표 후 칸느 정상회의 및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식공유 분야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진전을 보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지식공유 프로그램 시행하고, 보완 및 평가를 통해 지식공유 활동을 강화해가는 세 가지 단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식공유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에 따라,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복원력있는 성장 분야에서 지식공유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지식공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식공유를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및 G20 서울개발의제 지식공유 분야의 이행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한국이 G20 서울개발의제 지식공유 분야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지식공유를 위해 형성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전환한 발전경험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기대받는 만큼 개도국의 지식 수요와 선진국의 공유가 가능한 지식의 공급을 조율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남남 및 삼각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사례 보급을 강화하고,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국내 원조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식허브를 구축하여 전문가 풀 및 우수사례를 체계화하고 지식공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지식공유 이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nowledge sharing of the G20 Seoul Development Consensus, declared at the G20 Seoul Summit in 2010.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knowledge for development and knowledge sharing, the trends and effor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agencies have been analyzed and the implementing process of the knowledge sharing have been addressed since the G20 Seoul Summit.

At the G20 Seoul Summit, the leaders agreed to adopt the development agenda as a main issue to be discussed in order to reduce poverty and narrow the development gap in developing countries. In line with the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them build their capacities to achieve their economic growth potentials, the Seoul Consensus identified nine key pillar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resilient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knowledge sharing is one of those nine pillars.

Knowledge sharing is not new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id agenc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ed divers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t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socio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the World Bank, OECD, UNDP, and JICA have been selected to analyze the trends and efforts for knowledge sharing. While they all differ in terms of projects and scales, they share the similarities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knowledge, committing to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systematic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latforms and

networks, and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nowledge sharing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was declared. From the G20 Seoul Summit to Cannes to Los Cabo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knowledge sharing pillar has made some progress in implementation and that there are three stages of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1) the establishment level at which the knowledge sharing concepts were recognized and agreed, 2) the implementation level at which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the pilot programs, and 3) the consolidation level at which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could be supplemented by assessment and consolidated to be better implemented.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knowledge sharing platforms were launched and established in the pillars of food secur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esilient growth according to G20's mainstreaming efforts consistent with the Multi-Year Action Plan agreed in Seoul.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have committed to initi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nowledge shari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rends to activate the knowledge shar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nowledge sharing,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should advance and promot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provide good contents for the platform launched for knowledge sharing; second, Korea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a knowledge broker to provide a link between the dem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ly from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 to its development experience from having transitioned from a recipient to donor country; and third,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nd provide success cases and suggestions learned from the

case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to apply and develop.

In addition to the main suggestions for implementation of knowledge sharing, this study emphasizes that Korea should build a knowledge hub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aid agencies within Korea to make up a pool of experts and success cases and build the capacity for knowledge sharing.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try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knowledge sharing through partnership/network building and expans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1. 서론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는 개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상호 학습을 의미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접근법 또는 협의의 기술적 관점보다 사회, 문화, 인간개발을 위한 조직의 내외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하에 개도국으로 전달되던 일방적인 지식전수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과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개도국간 지식공유를 포괄하는 다각화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자국의 축적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식공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공유는 크게 내부적 지식공유와 외부적 지식공유로 분류되며, 내부적 지식공유의 경우 개발협력 기관이 개발사업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 내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적 지식관리, 연구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외부적 지식공유는 개발협력 기관의 외부 파트너 및 협력 주체들과 개발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남북협력을 위한 컨설팅, 원거리학습, 기술협력, 연수 등의 활동 외에 개도국간 지식공유로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식공유 활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기관의 지식을 성문화하고 내부 직원간 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내부적 지식공유보다는 개발을 위한 지식을 위한 관련 기관간 또는 외부 파트너 및 개도국과의 외부적 지식공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원조 관련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지식공유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발표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9가지 중점분야를 채택했다. 그 중 하나로 명시된 ‘지식공유’ 분야에서는 지식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이행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에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그 체계가 미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본 연구 보고서는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지식공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선정한 이후 이행 노력을 살펴보고, 한국이 서울개발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한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일부 자료와 관련하여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지식공유가 개발협력분야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간단히 정리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원조기관의 지식공유 분야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지식공유와 개발협력분야를 정리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개발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를 통해 신흥국, 개도국이 중요 행위자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지식공유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와 원조기관의 지식공유 분야의 추진현황 분석에 있어서 각 기구 또는 기관의 기존 지식공유를 위한 특징과 활동에 더해,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동향 또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G20 서울개발의제와 지식공유 분야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개발의제가 채택된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지식공유 분야가 이행되어온 시기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후 지식공유 분야가 다른 분야로 주류화되어 감에 따라 나타난 지식공유 플랫폼과 관련하여 주요 분야별 현황과 주요 국제기구의 지식공유 이행 현황을 차례로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G20 서울개발의제의 지식공유 분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JICA의 지식공유 분야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KOICA가 보완해나가야 할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에 더해, 한국이 향후 지식공유를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방향성 및 지식공유 사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 5장에서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제시된 방안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지식공유와 개발협력

가속화된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인적, 물적, 서비스 등의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의 활성화,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발전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국제 금융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은 도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을 위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orld Bank, 1998).

지식이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공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2003)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공유란 일반적으로 연구 및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쉽게 전근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조직 및 보관하며, 지식을 전수 및 전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¹⁾. 일반적으로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는 개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상호 학습을 의미하며 사회, 문화, 인간개발을 위한 조직의 내외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공유를 위해서 World Bank, OECD, UNDP, ADB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사례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지식공유는 G20 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등의 국제회의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²⁾.

이번 장에서는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가 강조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이어 국내외의 지식공유분야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지식공유는 기관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식공유는 용어의 사용상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정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공유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첨부자료에 정리해둘 것이다.

2) G20 정상회의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통해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과 함께 개발경험공유를 포함한 9가지 중점분야를 제시하였고, 부산에서 개최된 HLF-4에서 결과문서를 통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2.1. 지식공유의 중요성

지식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활용에 기반을 둔 경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술과 지식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OECD, 1996). 지식경제는 디지털화, 지식 집약성, 연계성, 세계화, 탈물질화, 아이디어 주도 성장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Ramalingam, 2005).

1996년 10월 세계은행 총재였던 James D. Wolfensohn은 연례 회의에서 개발지식을 ‘글로벌 공공재’의 일부로 인식하고 세계은행은 지식 은행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식을 축적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설했다³⁾.

공공재(public good)로서 지식⁴⁾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비경합적(non-rivalrous) 특징으로서 한 사람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식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더해져도 한계비용이 들지 않는 것, 즉 그 혜택이 줄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비배제적(non-excludable) 특징으로서 한 사람이 지식을 활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World Bank, 1998; Stiglitz, 1999; UNIDO, 2008). 이로서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지식의 흐름으로 볼 때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공유, 개도국 간의 지식 공유⁵⁾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3) 원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evelopment Knowledge is part of the **"Global Commons"**: it belongs to everyone, and everyone should benefit from it..(중략)... We have been in the business of researching and disseminating the lessons of development for a long time..(중략)...We need to become, in effect, the Knowledge Bank...(중략)...Let me stress one other point: The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is not about machines. It is about people. The challenge is to harness the technology to link people together and to leverage its impact for development. **That means both accumulating the right kind of knowledge, and helping our clients build the capacity to use it.** (James D. Wolfensohn 세계은행 전 총리, 연례회의 연설문, 1996년 10월 1일)

4) UNIDO(2008)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은 부분적으로 비경합적, 비배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경합성의 경우 혁신에는 경합성이 없더라도,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는 상당한 경합성이 있다고 보고, 배제성의 경우 그 특성상 무임승차(free-rider)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기관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식을 만들 인센티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5) 이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이하 SSC)과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이하 TC)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더 살펴보기로 한다.

2.2. 지식공유와 개발협력

개도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지식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경제이론에서 부(wealth)는 노동, 자본, 지대 등의 물적, 인적 자본의 투입을 통해서 창출된다고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보, 학습,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최근 지식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수요와 부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을 통해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ADB, 2004). 또한 기존 선진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물적 자원과 경제 성장과의 정관계와는 다르게, 동아시아(홍콩,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국가의 발전 경험을 통해 지식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재조명되었다⁶⁾.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식공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지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특정 지식에의 접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지식의 격차가 커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증가하는 지식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DB, 2004).

초기 단계에서 지식공유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해지는 일방적인 방식이었지만, 신흥공여국의 도래와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남남협력과 남남협력에 공여국이 참여하는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원조기관, 한국이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6) 동아시아 국가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 격차를 줄이는 성공적인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는 물적 자본에 포함된 지식에 투자하는 것과 사람과 제도에 투자하여 지식을 흡수·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형태로 나타났다(World Bank, 1998).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는 지식의 중대한 역할 외에도 중등, 고등교육,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지식 전수에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경제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Stiglitz, 1999, ADB, 2004).

2.3. 국내외 지식공유분야 추진현황

개발경험 지식 공유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주인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개발협력분야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플랫폼 및 이니셔티브가 형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 공여국의 원조기관 및 비정부기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식공유 활동은 행위자에 따라 단독(unilateral),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 지식공유로 구분할 수 있다(G20, 2011d). 단독 지식공유는 지식탐구자(seeker)가 관련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 라이브러리와 정보 저장소/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있다. 양자 지식공유는 정부간 협력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나며, 양자간 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교환을 통해 지식수요가 있는 지역에 맞게 적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자 지식공유는 주로 국제기구에 의해서 나타나며 지식탐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적, 동료 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1]에서 지식공유 실행에 있어서 유형별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지식공유 실행: 지식공유 유형별 구분



출처: 저자 작성 / 참고문헌: G20 (2011d), Qureshi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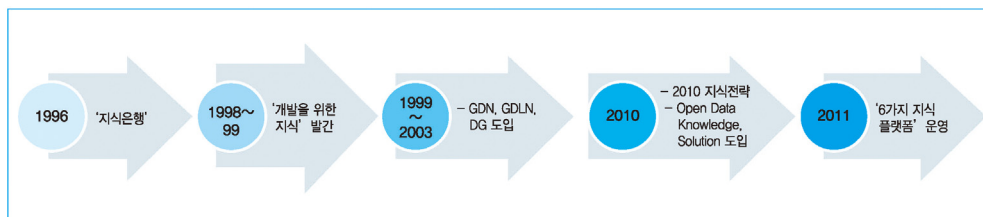
이번 장에서는 지식공유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의 지식공유 분야 추진현황 및 한국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 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근거는 국제기구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식공유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G20 지식공유 분야를 위해 노력하는 주요 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원조기관인 JICA의 경우는 수원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경험

에 근거하여 지식공유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과 유사성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국제기구 및 원조 기관이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및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공유 중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3.1. 세계은행(World Bank)

1996년 James D. Wolfensohn 전 총재의 연설에 이어, 1999년 ‘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을 부제로 한 세계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발간을 시작으로, 세계은행의 지식공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세계은행은 지식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확신하며, 재정·기술·의학 등에 대한 지식 접근성이 개도국의 빈곤층의 보건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 세계은행 지식공유 노력: 주요 이슈 정리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World Bank, 2003, 2011

세계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식의 생산, 보급, 운영을 위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개발 게이트웨이(Development Gateway, 이하 DG), 글로벌 개발 학습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이하 GDLN),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Network, 이하 GDN)로 구성된 3가지 주요 지식 기술 플랫폼⁷⁾을 도입했다. ICT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체계적 수집이 가

7) DG는 2004년 독립체가 되었고, 그후 ‘개발을 위한 ICT’ 분야의 국제 비영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GDN 또한 연구 및 정책 연구소의 독립 네트워크로서 운영되고 있다. GDLN의 경우는 세계은행이 조정에 참여하며, 120여개 글로벌 기관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이다. 세계은행은 GDLN을 위해 기술제공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중요한 행위자임과 동시에, 세계은행연구소(WBI)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은행의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식공유를 위한 역할을 생산자(producer), 최적화자(customizer), 중개자(connector)⁸⁾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공유를 비롯해 ‘열린 지식(open knowledge)’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은행의 전 총재였던 Robert Zoellick은 2010년 9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은행의 데이터와 지식의 보물 상자를 마을 보건 노동자, 연구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은행은 개발 지식에 관한 가장 대규모의 자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⁹⁾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은행의 ‘열린 지식(open knowledge)’을 위한 노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식공유를 위한 글로벌 중개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면서, 세계은행은 2011년부터 광범위한 개발 커뮤니티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원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6가지의 지식 플랫폼¹⁰⁾을 구축하여 재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취합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식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GDN, GDLN등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국가와 원조 기관간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게 하여, 전체 개발 커뮤니티가 각각의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8) 생산자(producer)로서 세계은행은 질적으로 우수한 지구적, 국가적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한다. 최적화자(customizer)로서 가능한 최고의 지식에 근거하여, 특정 문제에 부합하는 정책, 프로그램, 산출물을 최적화해서 고객과 협력한다. 중개자(connector)로서 유사한 문제상황에 직면한 행위자들과, 공적, 시민사회, 사적 행위자들을 연결시켜준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은 지구적 개발지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여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World Bank, 2011:1~2)

9) “This initiative will open the treasure chest of the World Bank’s data and knowledge to every village health care worker, every researcher, everyone. Today, the Bank remains the largest single source of development knowledge. But knowledge must be open to all. Our aim is Open Data, Open Knowledge, and Open Solutions”

10) 세계은행의 지식과 학습 협의회(Knowledge and Learning Council)이 Open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서 여섯 가지 지식 플랫폼에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여섯가지 지식 플랫폼은 세계은행 직원, 리서치 센터, 씽크 탱크, 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간의 범분야를 아우른다. 2011년 1월 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the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Open Development의 세가지가 우선 선정이 되었고, 같은 해 7월 Jobs Knowledge Platform, the Knowledge Platform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and The Hive: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가 선정되어서 운영 중이다(World Bank, 2011).

세계은행은 크게 세 가지로 지식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핵심(core) 지식, 비핵심(noncore) 지식활동, 핵심유사(core-like) 파트너십 활동이다. 그 중에서 핵심 지식활동¹¹⁾은 외부 파트너를 위한 지식, 공공재로서 지식, 내부 활용을 위한 지식이라는 3개의 큰 범주로 나눌 수 있고,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World Bank, 2011).

[표 1] 세계은행의 핵심 지식 분류

범주	지식 활동		목적
외부 파트너를 위한 지식	ESW	경제/섹터 업무	정책 공지
	TA	기술지원	개혁 시행과 제도 강화 지원
	IE	영향 평가	개발 개입 분석
	TE	외부 연수	연수
공공재로서 지식	RF	연구	지식,토론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 활용
	WD	세계개발보고서	개발 정책을 통한 방향성 제시
	GL	글로벌 모니터링	정책결정자, 학계, 시민사회에 데이터 제공
내부 활용 지식	KP	지식 관련활동	세계은행내의 지식 흐름 지원 활동
	NP	새로운 활동 개발	세계은행을 위한 새로운 활동 개발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World Bank, 2003, 2011

세계은행 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이하 WBI)는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세계은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역동적인 접근법을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계은행의 운영업무와 지역 담당자를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을 위한 열린 지식(open knowledge),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혁신적 해결(innovative solution)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열린 지식 분야를 자세히 보면, WBI는 이해당사자와 개발 전문가를 글

11) core knowledge 구성은 Regional Vice Presidency (이하 Regions), Network Vice Presidencies (이하 Networks), as well as by the Development Economics Vice Presidency (이하 DEC), the World Bank Institute (이하 WBI)¹¹⁾가 주관한다.

로벌 지식과 학습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며, 구조화된 학습(structured learning)과 지식공유(knowledge exchang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구조화된 학습을 위해서, WBI는 글로벌 지식을 연수 프로그램에 코드화하고, 테스트한 개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세계은행은 가상의 e-학습 플랫폼인 e-institute를 도입했다. 둘째로, 지식공유를 위해서, WBI는 개발도상국간 동료 학습(peer-to-peer learning)을 지원하고, 지식공유를 중개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세계은행이 분포된 국가팀이 각국 프로그램에 지식공유를 포함하도록 권유하고, 전 세계 지식공유 이행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개발 학습 네트워크(GDLN)을 증진한다.

지식공유(KE) 전략의 일환으로서, WBI는 남남지식협력(South-South Knowledge Exchange, 이하 SSKE)를 발전시켰고, 중개, 재정지원, 계획, 시행, 결과의 과정을 통해 지식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SSKE를 통해서, 개도국들은 국가주도의 개발 해결 방안을 구상, 이행 및 측정을 위한 영감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SSKE는 각국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을 제공해줄 수 있고, 주제 또한 다양하게 구성된다.

2.3.2.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OECD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는 회원국 정부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장을 제공한다.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1996년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발간을 통해 OECD DAC는 50여 년간의 개발협력을 통한 시사점을 반영하고, 국제적인 포럼에서 논의하고 동의한 지표들을 선택하여, 경제적 웰빙, 사회 개발,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생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OECD DAC, 1996). 같은 해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발간을 통해 지식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제기구와 원조기관들이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식에 기반한 원조에 힘쓰게 되었다.

OECD는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다른 개발 단계의 국가, 국제·지역 기관과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인 대화와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2).

OECD는 다양한 형태로 지식공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²⁾. 첫째로는 체계적인 정책 검토로서, 진전된 바를 벤치마킹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회원국의 동료 검토로서 정책결정자에게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포럼, 지역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로서, 경험의 상호작용과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개발협력을 위해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을 구성했고, 후에 Kennedy 대통령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의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가 만들어졌다¹³⁾.

개발센터는 국가들이 경제사회 개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이고 개발 정책 토론을 위해 전문가 분석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해결방안을 찾도록 정책결정자를 돕는 것이 설립목표이다. 지식공유를 위한 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우선 파트너와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지식을 요청하는 수요가 있으면, 지역네트워크와 다양한 행위자(민간 분야, 지역 싱크탱크, 재단 등을 포함)로 구성된 지식네트워크¹⁴⁾를 활용하여 지식공유 대화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 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지식공유 대화와 분석은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조사결과 및 제언을 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OECD는 원조효과성과 관련하여 남남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남남협력팀(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이하 TT-SSC)은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발표된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ction Agenda)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원칙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원조효과성 작업반(Working Party and Aid Effectiveness, 이하 WP-EFF) 내에 2009년 9월에 출범하였다.

12) Synthesis report of Joint Workshop on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Taking Stock of Best Practices, KDI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OECD Development Centre, 2012

13) 그 외에 사헬과 서아프리카 클럽(Sahel and West Africa Club) 사무국, 아프리카 파트너십 포럼(African Partnership Forum) 등이 만들어졌다(OECD 2011).

14) 행위자에 따른 지식네트워크로는 1) OECD 기반의 다국적 기업과 신흥국의 counterpart 사이에 분석, dialogue, 경험 공유하는 민간 부문 중심의 플랫폼인 EmNet(Emerging Markets Network), 2) 개발 재원을 연구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연구센터, 학술기관으로 구성된 DeFiNe(Development Finance Network), 3) 개발분야에서 비정부 행위자와 재단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구성된 netFWD(Global Network of Foundation Working for Development)가 있다(<http://www.oecd.org/dev/developmentpartnershipsnetworks/>).

TT-SSC는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와 학계, 지역 및 다자 기구들이 남남협력 실행과 원조효과성의 상관관계를 연구,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¹⁵⁾.

TT-SSC는 진화하는 글로벌 원조구조에서 개도국의 관점과 파트너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에서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수반한다. 이런 점에서, TT-SSC는 원조효과성과 시너지와 남남협력 시행을 문서화, 분석, 논의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의 3단계 mandate¹⁶⁾를 담당한다.

TT-SSC의 업무계획¹⁷⁾에서는 세 가지 주요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의 좋은 사례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 업무를 심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발경험공유와 사례연구논의를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tioners, 이하 CoP)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에 관해서 실행기반(practice-based) 정책 보급에 기여하여 남남협력과 원조 효과성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TT-SSC는 지역 플랫폼 강화와 개발효과성 프레임워크하에 남남협력의 사례연구를 수집·분석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플랫폼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아시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의 미주개발은행(IDB)와 미주기구(OAS)의 지원을 통해 강화되었다. 개발경험공유 사례연구 업무에 있어서, 130여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이 포함된 110여개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남남지식공유가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저비용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3.3.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이하 UNDP)

2010년 6월 24일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 집행이사회 연설에서 헬렌 클라크 총재는 UNDP에 대한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나의 비전은 UNDP가 개발도상국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

15) TT-SSC 웹사이트(<http://www.southsouth.org/en/>) 참조

16) 세가지 mandate는 1)Adapting the Paris Declaration and Accra Agenda for Action principles for SSC (AAA art. 19a), 2)Enriching the effectiveness agenda with the practices and experiences of SSC (AAA art. 19b), 3) Identifying complementarities between SSC and North-South cooperation (AAA art. 19e). 이다.

17) TT-SSC Work Plan 2010-11(http://www.southsouth.org/uploads/pdf/TT-SSC_Work_Plan_2010-11.pdf)

주고, 그 결과를 위해 전체 UN 개발 체계의 강점에 연계해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지식기반 개발 기구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¹⁸⁾.”

상기 내용은 개발협력을 위해서 UNDP가 지식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UNDP는 개발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지식을 잘 모으고, 공유하여,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UNDP는 Teamworks를 개발하였다. Teamworks는 지식관리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기관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식 수요자와 파트너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Teamworks는 온라인 동료 네트워킹과 지식공유를 제공하고 일정 가격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 Teamworks는 지식공유를 위해 동료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직원이 서로를 찾아서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외부 파트너를 초대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온라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도 제공한다. Teamworks의 특징으로는 지식, 기술, 전문성을 표시한 직원 프로필 열람, 가상 업무공간 생성, 사용자간 파일 공유 가능, 검색 기능, 토론 포럼, 기관간 협력 등이다.

또한 UNDP는 남남협력 특별반(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SU-SSC)을 통해서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74년 12월 4일 UN총회 resolution 3251에 의해서 UNDP에서 독립하여 설립된 개도국을 위한 기술협력 특별반(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으로 시작하였지만, 2003년 5월 30일 남남협력 고위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남남협력을 위한 특별반(SU/SSC: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으로 변경되었다(UNDP,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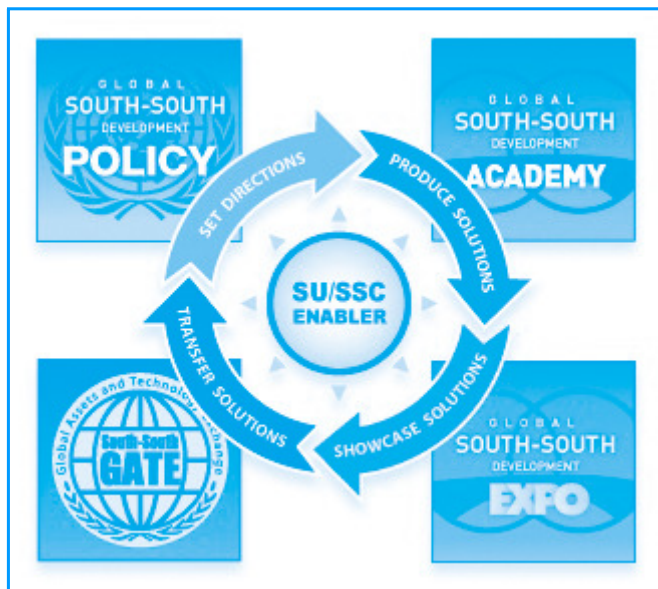
남남협력을 위한 특별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의 고위급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남남협력을 위한 UN 기금을 관리한다. 셋째, 남남협력을 위한 UN의 날을 조직한다. 넷째, 정책 조연과 기술지원을 한다. 다섯째, 기존 남남협력 센터를 강화시키고 참여 기관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킨다. 여섯째, G-77의 개도국의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페레스-귀레노 신탁 펀드(PGTF)와 빈곤과

18) 원문은 “Looking ahead, my vision is for UNDP to be widely acknowledged as a world class, knowledge based development organization which helps developing countries make transformational change and helps channel the strengths of the entire UN development system to that end”이다
(<http://content.undp.org/go/newsroom/2010/june/helen-clarkstatement-to-the-undp-unfpa-executive-board.en?categoryID=593043&lang=en>).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인도-브라질-남아공(IBSA) 신탁 펀드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 조정, 지원하기 위해서 남남협력을 위한 특별반은 개발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3-in-1’ 구조로 운영된다. 남남협력을 위한 특별반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수많은 개도국 개발 해결방안과 전문가가 확인되고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인 글로벌 남남협력 아카데미(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Academy)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글로벌 남남 개발 엑스포(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에 게시되어 오늘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개발 방안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남 글로벌 자원과 기술 공유(South-South Global Assets and Technology Exchange)를 통해 증명된 해결방안을 전수한다.

[그림 3] SU/SSC 운영체계



출처: 남남협력 특별반 웹페이지 (<http://ssc.undp.org/content/ssc.html>)

2.3.4.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일본은 지식 또는 역량강화 대신에 원조를 위한 핵심 철학으로서 “경험”을 강조해 왔다. 이는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해가는 고유의 경험에 기반하여, 자조(self-help), 수원국의 주인의식, 유상원조의 역할, 남남협력, 다른 국가와의 연대 등을 강조한다(King and McGrath, 2004). 2001년 초 JICA는 지식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998년 세계은행이 지식관리 프로젝트(이후 지식공유)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결과였다¹⁹⁾. JICA는 세계은행과 유사하게 지식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직 내 존재하지만 통합되거나 접근가능하지 않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내외부 문서를 보관함과 동시에, JICA는 주제와 분야에 따라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성하였다. 이는 JICA가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감에 따라서 각각의 섹터에 주제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amalingam, 2005). JICA의 지식관리는 초기에 내부적인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은행이 그러했듯이, 외부적 지식공유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JICA의 외부적 지식공유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해왔다. 이후 남남 지식공유 협력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주력해오고 있다.

2008년 10월 이원화되어 있던 원조 집행기관을 JICA로 통합함에 따라서, JICA는 기존에 실행하던 기술협력과 함께,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JICA 2011). JICA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발(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을 비전으로 하여, 4가지 전략을 통해 달성될 4가지 미션을 명시하였다. 미션은 글로벌 어젠다 대응, 고른 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 거버넌스 개선 지원, 인간 안보 달성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원조체계의 통합, 범분야를 아우르는 원조 제공, 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와 지식공유 강화이다. 4가지 전략 중 특히 연구와 지식공유에 관해서 변화하는 국제개발 환경에 있어서 JICA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9) JICA의 지식관리(현재 지식공유)는 세계은행의 지식관리와 비교했을 때 두가지 면에서 필요성과 도전과제가 다르다. 하나는 지식관리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고자 할 당시, JICA에는 지역 부서가 없었고, 담당 인력들은 전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세계은행은 지식관리에 관해서 어떠한 국가적 지지층을 가지지 않지만, JICA는 원조를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중요성과 함께 관련된 지지층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JICA가 시행하는 원조 중 지식공유를 위한 노력은 기술협력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JICA의 기술협력은 전문가 파견, 연수 참가자 수용, 장비 제공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R&D, 기술 보급, 제도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술협력의 5가지 주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파견

JICA는 파트너 국가와 담당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파트너 국가 상황에 적합한 기술과 제도 개발을 위해서 담당자와 협력한다.

2) 연수 참가자 초청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JICA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연수생으로 초청한다. 일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크게 '연수와 대화 프로그램(Training and Dialogue Program)'과 '청년지도자 연수(Training for Young Readers)'로 진행하고 있다²⁰⁾.

3) 장비 공급

효과적인 기술협력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파트너 국가에 제공한다.

4) 기술협력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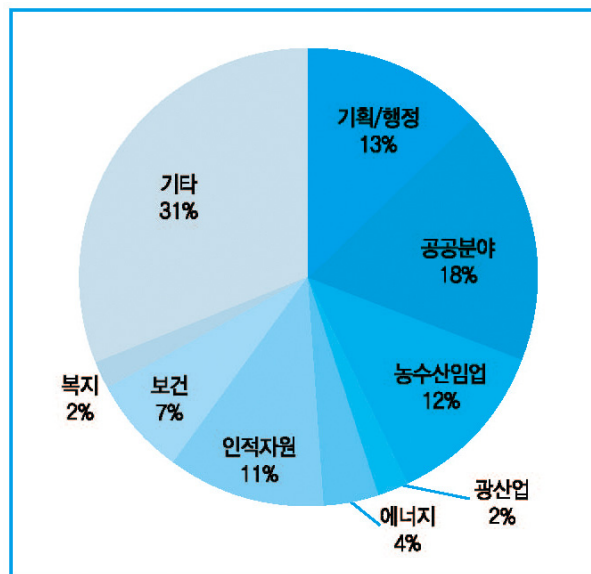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는 참여형 방법을 채택하여 지역민들이 전 단계에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프로젝트를 위한 경험, 지식,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총괄적인 이행 단계로서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5단계로 이뤄진다. 프로젝트 확인/구성, 파트너국의 요청 및 승인, 사전 평가²¹⁾, 프로젝트 시행/중기 검토/ 종료 평가, 후속 평가로 진행된다.

20) JICA의 연수프로그램은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Projects for country Focused Training and Dialogue', 'Training Programs for Young Leaders'로 구성된다.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제안서를 보내고, 그에 응하는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시행된다. 'Projects for Country Focused Training and Dialogue'는 개발도상국의 특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며, 'Training Program for Young Leaders'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개발도상국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연수에 중점을 둔다.

5) 개발 계획을 위한 기술협력

JICA는 개도국의 정책결정과 공공업무 계획을 지원하는데,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 시행한다. 그 방법은 각각 마스터플랜과 정책지원 연구, 긴급 지원 연구, 실현가능성 연구, 기타(지형측량, 지하수 조사 등)이다.

[그림 4] JICA 기술협력 - 분야별 지원실적



출처: 저자 작성 / 참고문헌: JICA Annual Report 2011

지식관리 프로젝트가 도입된 이후 개발을 위한 지식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ICT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초기 JICA는 J-Net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6개의 원거리 학습 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는 파트너 국가 개개인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에 장거리 기술협력프로그램으로 개발된 JICA-Net(<http://jica-net.jica.go.jp/en2/index.html>)²²⁾은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 교재, 화상회의 시스템, 인터넷 등과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JICA프로그램 학습

21)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의 5가지 평가 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22) JICA의 JICA-Net과 세계은행의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기술협력과 지식공유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2004년 협정서에 서명하였고, 시설공유에서 지식공유에 이르기까지 협력하기로 하였다(http://jica-net.jica.go.jp/en2/guide/gdln_top.html).

을 돕도록 구축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본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남남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JICA는 1975년부터 남남협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본 ODA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 개도국의 자조 노력 증진과 고유한 개발 전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2003년 ODA 헌장(charter)에서 “일본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선진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남남협력을 본격적으로 증진해나갈 것이다. 일본은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는 범지역 협력을 지원한다”라고 밝혀, 남남협력에 대한 JICA의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5년 개정된 일본의 ODA 중장기 정책에서 “ODA 헌장에서 밝힌 바 있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우선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 그 원칙은 개도국의 자조 노력(주인의식)과 국제사회의 이행 사항 지원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일본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JICA의 중기계획(2007-2012)에서는 “JICA가 개도국의 남남협력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좌시하고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JICA는 일본 정부 정책 및 ODA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남남협력을 위한 방향성 및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ICA는 특히 지역별로 다양한 남남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남협력을 위한 일본-동남아시아 회의(J-SEAM), 장애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개발 센터(APCD)가 지원하는 동료 협력, 아프리카 쌀 개발 연합(CARD) 등이다. JICA는 양자협력으로 남남협력 지원을 시작하였고, 점차 기존지원국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도국에 결과를 보급하여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3.5. KOICA

한국의 지식공유 사업은 개도국으로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창단된 이래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공유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04년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태와 사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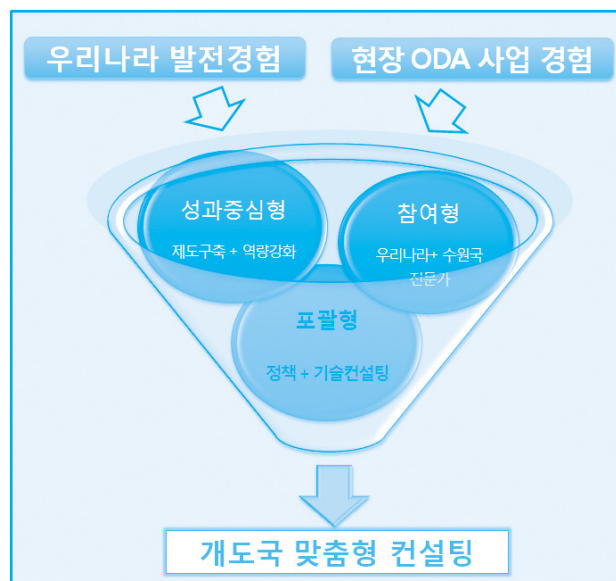
한국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 및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개발협력의 기반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화된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해온 독특한 개발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유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4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과정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식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위한 지식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발경험 공유를 위해 시행기관은 개발협력 콘텐츠를 전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밝혔다.

지식공유를 위해 주력하는 기관으로 KOICA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KOICA는 지난 20여년간 지식기반 ODA 사업의 확대 및 체계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문,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다양한 사업형태로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요청 증대 및 원조효과성 증대 차원에서 양질의 개발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유관부처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OICA의 개발컨설팅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존 여타 부처가 추진하는 개발컨설팅과의 차별화를 통해 KOICA 개발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기술 및 지식 등 기술협력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개발컨설팅 프로젝트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KOICA의 개발컨설팅 프로젝트를 DEEP Program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으로 브랜드화하였다. DEEP 프로그램은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컨설팅, 역량강화를 고려한 성과중심형 컨설팅, 정책·기술컨설팅을 포괄하는 포괄적 컨설팅의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KOICA가 사업 추진을 통해 습득한 현장경험 및 수원국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 DEEP 프로그램의 예로서 네팔 의료보험제도 타당성 조사 및 의료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사업 및 네팔 의료보험도입 지원사업²³⁾을 들 수 있다.

23) KOICA 네팔 의료보험제도 타당성 조사 및 의료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사업(2010-2012/100만불) 및 네팔 의료보험도입지원사업(2013-2015/450만불) 설명자료 (KOICA 내부자료)

KOICA는 네팔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제도 모델 도출에 이어 관리 매뉴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네팔 의료보험사업을 2010년에서 2012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네팔 지역기반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조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행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함께 네팔 정부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성있게 발전될 수 있게끔 2차 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네팔 의료보험 도입지원사업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운영하여, 이전 사업 시행을 통해 인력, 네트워크, 현지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의 광역적 이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OICA의 DEEP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아닌, 동일 국가, 동일 섹터의 다양한 사업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통합형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DEEP 프로그램 개념도



출처: 외교통상부, DEEP 프로그램 개요

또한 KOICA는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페루, 알제리 3국간 알제리 씨감자생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알제리의 작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작물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식량 작물인 감자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알제리는 씨감자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 의제 발표와 함께 KOICA는 협력사업에 있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2008년 KOICA 총재는 페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페루가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감자품종 및 재배기술을 한국의 대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다른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삼각협력으로서 본 협력사업은 북-남-남의 형태이며, 이때 북은 한국을,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남은 페루를, 남은 알제리를 지칭한다. 씨감자 생산기술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은 씨감자 생산을 위한 연구 시설 설립, 장비, 수경재배 기술협력, 병충해 방지 기법 등을 제공하고, 감자 유전자원 확보 면에서 우위가 있는 페루는 감자 육종 기술 제공과 전문가를 파견하며, 알제리는 씨감자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였다. 본 협력사업을 통해 알제리의 씨감자 생산 기술이 강화되었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페루와 알제리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KOICA의 삼각협력 역량 증진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KOICA는 개도국 간 개발협력 수요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행과 관련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개발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남남 및 삼각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G20 서울개발의제와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UN,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G7이 세계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신흥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경제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서 기존 G7과 주요 신흥국이 포함된 G20²⁴⁾가 등장하게 되었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며, 2011년부터 일년에 한차례 개최되는 제도화된 모임이 되었다.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G20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존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하게 되었다.

신흥공여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개발 분야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G20를 통해 신흥국들은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세계경제의 공동 원칙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G20는 국제사회의 개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흥공여국과 선진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G20를 통해 국제 공동의 합의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선진국으로 구성된 G7과 달리, 신흥경제국까지 포함된 G20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를 합의하는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정상회의인 만큼, 각국은 국익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주력하던 G20는 개도국을 세계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개도국의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로써 G20는 참여국의 경제발전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포럼으로서 입지를

24) G20는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20개 국가들이 모인 국제경제 협력 논의체제로서 선진경제 7개국(G7이라고 불리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되어 있음)과 신흥경제 12개국(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로 구성됨)과 유럽연합(EU)로 구성되어 있다.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관해 G20 회의별로 나타난 개발의제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토론토 회의에서 개발의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확인²⁵⁾하였고, 2010년 11월에 개최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선진국과 후진국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에 합의하였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성장과 연계된 9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했다²⁶⁾. 개발 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G20 개발그룹은 G2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실무급 협의체로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개발협력 분야 국장급인사로 구성되어 G20 개발의제의 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각 분야에는 공동조정국(co-facilitator)과 주요 국제기구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및 개발경험공유의 공동조정국을 맡고 있다.

그후 2011년에 개최된 칸느 정상회의에서는 칸느 정상회의 선언문²⁷⁾을 통해 개발의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 G20는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의 잠재적 성장과 경제 복원력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개발은 글로벌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의제 중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 창출에도 결정적이다. 개발에 관해서는 모든 G20 회원국이 우려하는 바이며, 힘써야 할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25) G20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개발 격차 축소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달성 과 복원력있는 글로벌 경제를 이루려는 G20 목표에 핵심이며, 이런 점에서 개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개발의제와 다년간 행동 계획을 상세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26) G20의 6대 개발원칙은 1) 경제성장과 복원력 있는 성장 중심의 개발의제 추진, 2)당사국 주도의 개발정책 추진과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 3) 국제·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주제의 우선 추진, 4) 민간부문 참여 촉진, 5) 기존 개발협력 논의와의 차별화 및 보완, 6)이행가능한 행동계획을 통한 구체성과 도출로 구성된다. 9개 분야는 인프라, 무역,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식량안보, 복원력있는 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경험 공유 이다.

27) Cannes Summit Final Declaration - Building Our Common Future: Renewed Collec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All

- ◎ G20 서울개발 컨센서스를 이행하는 개발그룹의 보고서를 지지하며 다년간 행동 계획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한다.
- ◎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선진국이 약속한 원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G20 신흥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국이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해 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을 환영하며, 지향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주도하기 위해 삼각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개발의 구체적인 결과와 전반적 영향에 관해 집중할 것을 약속한다.
- ◎ 부산에서 개최될 4회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환영하며, 이 포럼이 개발효과성을 위한 더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개최된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선언문(G20 Leaders Declaration)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를 발표했다.

- ◎ 빈곤 감소와 포괄적, 지속가능성 있는 균형 성장 달성이 G20 개발 의제의 주요 목적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주도의 정책과 우선과제를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재확인한다.
- ◎ 지난 G20 정상회의 의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개발그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다음 정상회의 때까지 개발그룹이 개발의제의 평가와 책무성을 위해 노력한다.
-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하기로 한다.

[표 2] G20 정상회의 정리

구분	G20 서울 정상회의	G20 칸느 정상회의	G20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개최 일시	2010년 11월 11-12일	2011년 11월 3-4일	2012년 6월 18-19일
참석국가/ 기관/ 초청국	- G20 회원국 - 7개 국제기구(UN, IMF, WB, OECD, WTO, FSB, ILO) - 초청 5개국 (베트남, 말라위,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스페인)	- G20 회원국 - 7개 국제기구(UN, IMF, WB, OECD, WTO, FSB, ILO) - 초청 5개국 (스페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 G20 회원국 - 8개 국제기구(UN, IMF, WB, OECD, WTO, FSB, ILO, FAO) - 초청 6개국(스페인, 콜롬비아, 칠레, 에티오피아, 베넬, 캄보디아)
주요 선언문	- 정상선언문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 Multi-Action Plan on Development -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 ‘공동의 미래 구축: 모두를 위한 개선된 공동 행동’ 정상선언문 (Building Our Common Future: Renewed Collec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All) - ‘고용과 성장을 위한 칸느 액션 플랜’ (The Cannes Action Plan for Growth and Jobs)	- 정상선언문 (Leaders Declaration) -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까보스 액션플랜’ (The Los Cabos Growth and Jobs Action Plan)
주요 의제	- 국제금융기구 개혁 - 금융 부문 개혁 - 보호무역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 금융 소외계층 포용 - 기타(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및 아웃리치)	-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 국제통화 제도 개혁 - 금융 규제 개혁 - 에너지 및 기후변화 - 개발 - 무역 - 기타(농업, 글로벌 거버넌스, 고용·노동, 반부패)	-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한 거시정책공조 - 무역 - 국제금융 체제 강화 -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 개발 - 녹색성장 - 기타(고용노동, 반부패 등)
개발관련 이슈	개발 의제 등장	중점 우선과제 (식량안보, 인프라) 확인	중점 우선과제(포괄적 녹색성장, 인프라, 식량안보)
지식공유 관련 이슈	- 지식공유 확대방안 요청 - 지식공유를 나머지 8개 분야로 주류화 합의	- 플랫폼·네트워크 통한 경험 확대 합의	- 플랫폼 지원 지속 - 플랫폼 실행 지원 - 기타 분야로 주류화합의

출처: 저자 작성 / 참고문헌: G20, 2010a, 2010 b, 2011a, 2011b, 2011c, 2011d, 2012a, 2012b, 2012c

3.1. 정상회의 시기별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

본 장에서는 서울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깐느 정상회의, 로스카보스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개최되기까지 지식공유 분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되는 개발그룹 회의 보고서나 지식공유 분야를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3번의 정상회의 개최, 2번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식공유 분야 이행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1. 서울 정상회의

‘서울 정상회의 문서’에서는 지식공유에서는 특히 개도국간 지식과 경험공유를 확대하고 다른 분야로 주류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 행동계획’에서는 지식공유 분야의 중기에 걸쳐서 이행되고 개발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관련성 있고 효과적인 개발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지식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UN, 세계은행, OECD, 지역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성장과 개발에 관한 지식재원을 강화하고 폭을 넓혀줄 것을 권장하며, 지식공유 이니셔티브가 다년간 행동계획의 각 분야로 주류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지식공유 분야의 구체적 행동계획은 지식공유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되었고, 남남협력팀(TT-SSC)과 UNDP가 북남, 남남, 삼각 협력을 포함한 지식공유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제안에는 지식 자원 확대, 중개(brokering)²⁸⁾ 기능 향상, 우수 사례 보급 강화 및 자원 옵션을 확대하는 것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하였다.

3.1.2. 깐느 정상회의 준비 과정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발표 이후, 다년간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G20의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지식공유 분야의 경우 G20 운영위원회와 개발그룹 회의 등을 통해, 특히 지식공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28) 낮은 거래비용으로 지식, 경험, 역량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맞춰주는 능력을 의미한다(G20, 2011d, 첨부 1 지식공유 관련 용어 정리 참조).

3.1.3. 깐느 정상회의

개발그룹 보고서²⁹⁾를 통해 지식공유에 관해서 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를 확인하였다. 회원국의 다양성과 상보성은 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장점이며, 각국의 상황과 특수성에 기초한 다양한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one size fits all' 접근법이 개발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원국간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식공유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할 것임을 합의했다. 지식공유는 개발협력을 위한 도구이고,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기술개발(development of skills), 열대농업기술과 생산 시스템(tropical agriculture technologies and productive systems) 영역의 지식공유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 형성을 환영하였다. 다른 분야로 지식공유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에 더해 지식공유 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와 동의한 우수 사례와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삼각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삼각협력 접근법은 최근에 빠른 경제성장과 개발을 경험한 신흥국의 노하우와 기술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 달성을 위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고, 빈곤퇴치에 있어서 개발협력의 영향력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지식공유 분야 경과보고서³⁰⁾에서는 지식공유 경과와 달성결과, 향후 이행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 다년간 행동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요 경과와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UNDP, OECD, WBI, TT-SSC가 다년간 행동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10일에 최종 보고서³¹⁾를 제출하였다. 둘째, 개발그룹은 지식공유를 개발협력의 도구로 인식하고 지식공유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셋째, 개발그룹은 개발에 있어서 'one size fits all' 유형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넷째, 지식공유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다섯째로는, 깐느 정상회의에 채택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G20 회원국이 국제 파트너와 합의한 우수 사례와 원칙에 따라 지식공유 활동을 확대 및 개선을 지지하는 것과 멕시코 정상회의에 앞서 3가지 분야 지

29) 2011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30) Progress Report of Pillar 9: Knowledge Sharing

31)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식공유 플랫폼(사회보호, 기술개발, 열대농업기술과 생산 시스템) 설립을 승인받는 것이었다. 주요 국제기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물을 개발할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지식공유 참여 국제기구의 개발예정 업무

산출물	담당 국제기구
양자다자간 지식공유를 위한 담당자(focal point) 목록화	UNDP (멕시코 지원)
지식공유 외 나머지 8개 분야의 지식공유 활동 구조화	UNDP
각국의 지식공유 활동 수립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World Bank Institute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우수 사례 정리 보고서 작성	TT-SSC

출처: 저자 작성/ 참고: G20, 2011c

이에 더해 개발그룹 결과가 깐느 정상회의 이후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기여하고, 지식공유 분야가 사회보호, 기술개발, 열대농업기술과 생산 시스템 분야의 지식공유 플랫폼 형성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사회보호 분야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지식공유 노력이 남남, 삼각협력과 더불어 좋은 사례를 촉진하는 지식공유의 잠재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을 향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3.1.4.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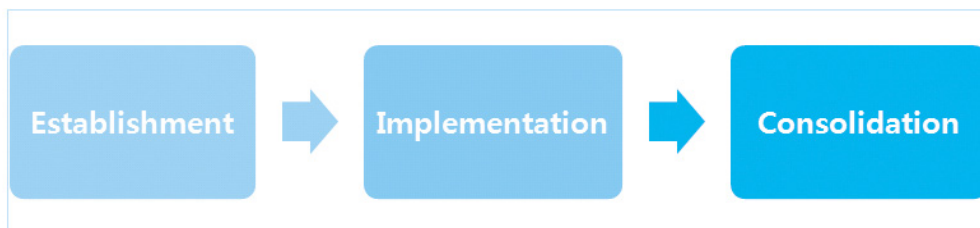
깐느 정상회의 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통한 상호학습을 위한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깐느 정상회의 때 지식공유 분야 개발그룹이 발표한 경과보고서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이행 목표가 추진되는 경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다른 분야로 지식공유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1.5.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개발그룹의 경과보고서에서 지식공유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ne-size-fits-all” 개발 모델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그룹은 식량 안보, 성장복원력,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한다. 깐느 정상회의 이후 이 3가지 플랫폼의 설립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재원 동원과 국제 세금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투명성과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과 OECD의 세금·개발 특별팀(Tax and Development Task Force)이 기술지원 조정을 강화하는 플랫폼을 출범시킨 것에 기인한다.
- 2) 농업과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성장복원력분야에 더불어 다른 개발그룹 분야에서 제안한 지식공유 플랫폼이 완전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3) 2013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지식공유분야와 3가지 플랫폼에 주력하는 국제기구로부터 플랫폼별 진전과 이해에 관한 평가와 다년도 개발계획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림 6] 지식공유 확대 및 주류화 3단계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G20, 2010a, 2010 b, 2011a, 2011b, 2011c, 2011d, 2012a, 2012b, 2012c

정상회의 시기별로 진행되어온 지식공유 분야의 이행현황 및 목표를 통해 지식공유 확대 및 주류화는 세단계로 정리된다(그림 6 참조). 첫 번째로, ‘Establishment’ 단계에서는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미 시행중인 지식공유의 활동을 확인하고, 담당기관의 역할을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로, ‘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국가별, 분야별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 및 수정 작업을 거쳐 본격화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Consolidation’ 단계

에서는 앞서 시행해온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지식공유를 확대해 나가게 되며,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

3.2. 분야별 이행 현황

앞서 정상회의 시기별 지식공유분야 이행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갠느 정상회의 이후, 관련 국제기구들이 3가지 지식 공유 플랫폼³²⁾ 구성에 진전을 보였고, G20 개발그룹에 보고하였다. 각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는 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고, 가능한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을 확인하며, 주최 국가 및 국제기구를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온라인 해결책을 테스트하였다. 갠느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3가지 분야 외에도 국내재원 동원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였다.

지식공유 활동을 다른 분야에 주류화하는 것을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및 다년간 행동계획에서 이행 목표로 삼은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3가지 분야에서의 지식공유 현황에 대해서 주요 시행 단계, 플랫폼 영역과 특성, 다음 단계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지식공유 플랫폼 정리

플랫폼 구분	Tropical Agriculture	Skills for Employment	Social Protection
소속 분야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복원력있는 성장
공동조정국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주도 국제기구	FAO, IFAD, IMF, OECD, UNCTAD, WFP, WTO, WB	ILO, OECD, UNESCO, WB	UNDP, ILO, WB
주요 시행 단계	- concept paper 작성 - 비공식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제안서 제출·승인 - 공식 출범(2012.09)	- 플랫폼 구축 제안 및 승인 (2011.03) - 원형(prototype) 개발, 테스트, 수정(2011.11) - 포커스그룹 테스트 (2012.3~)	- 원형(prototype) 개발 - 커뮤니티 관리 요소를 UNDP 구축한 Rio Dialogue Platform에서 시연함(2012.05)

32) 3가지 지식공유 플랫폼은 열대농업(식량안보 분야), 고용 기술 (인력개발 분야), 사회보호(복원력있는 성장 분야)이다.

플랫폼 구분	Tropical Agriculture	Skills for Employment	Social Protection
플랫폼 영역과 특성	- 목표: 개발도상국 열대 농업 혁신을 위한 지식 공유와 역량강화 효과성·효율성 증진 - 주요 요소: 정책 대화, 역량강화 파트너십,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지식공유	- 목표: 고용가능성, 생산성, 사회 개발에 관해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 집대성 - 생산성 있는 관철은 (decent) 직업에 교육 연수를 연결시키는 방법 구상 - 주요내용 :skills for youth employment, skills anticipation focusing on green jobs, training accessibility focusing on disability inclusion	- 목표: 증거기반 (evidence- based) 사회 보장 정책 지원, 저소득 국가 주요 부응 - 특징: 웹기반 메커니즘, 사용자 중심, 기타 메커니즘 접근성이 용이한 포털과 게이트웨이 (gateway)로서의 역할
향후 진행 단계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출범할 예정	-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출범 예정(~2012년 말 예정) - 파일럿 테스트 진행 (12월 말 보고서 제출) - 원형 수정 및 개선 계속	- 기관간이사회(Inter-agency board) 구성 예정 - ILO, WB가 의장을 맡고 국제기구와 양자 공여국의 사회보호 조정과 협력 노력 - 2년 후 경과보고서 제출

출처: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G20, 2012b

3.2.1. 열대농업 플랫폼 (식량안보 분야)

이 플랫폼은 식량안보 분야에서 FAO, IFAD, IMF, OECD, UNCTAD, WFP, WTO, WB에 의해 개발되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이 공동조정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1) 주요 시행 단계: 열대농업 플랫폼(Tropical Agriculture Platform, 이하 TAP)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G20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FAO가 TAP의 개념 정립과 구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FAO를 포함한 다수 농업연구기관³³⁾이 플랫폼의 영역과 특성을 정리한 개념문서(concept paper)를 공동으로

33)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Empresa Brasileira de Pesquisa Agropecuária (EMBRAPA), and others

작성하였고, 이는 2011년 9월에 개최된 G20 개발을 위한 농업 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FAO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비공식 관계자 협의체(Informal Stakeholder Consultation)를 조직했다. 많은 G20 정부들이 TAP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안서는 2012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된 G20 개발그룹 회의와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농업 부장관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TAP 제안서를 최종 보고했다. TAP는 2012년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주최 농업 최고 과학자 회의(G20-led Meeting of Agriculture Chief Scientists)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2) 플랫폼 영역과 특성: TAP는 '기존 메커니즘과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열대분야에 있어서 농업 혁신 체계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와 역량 강화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TAP는 3가지 주요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첫째로는 강화된 정책 대화, 둘째로는 효과적인 역량 강화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강화된 지식 공유이다.
- 3) 다음 단계: TAP는 향후 세 가지 주요 서비스 분야(정책대화, 역량강화 파트너십, 지식공유)를 위한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국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며, 농업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 국가 및 지역 정책 및 행동 방안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출범할 계획이다.

3.2.2. 고용을 위한 기술 플랫폼 (인적자원개발 분야)

이 플랫폼은 공동조정국인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의 합의 하에, ILO, OECD, UNESCO, WB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 1) 주요 시행단계: 2011년 3월 DWG 회의에서 파트너 국제기구와 공동주체 국가들이 '고용기술에 관한 글로벌 공공-민간 지식공유 플랫폼(global public-private knowledge sharing platform on skills for employment)' 구축을 제안했고, 개발그룹이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옵션은 2011년 7월 개발그룹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2012년 1월에 있었던 개발그룹 회의에서 다음 발전 단계를 논의하였다. 2011년 11월 초기 원형(prototype)을 발전시킨 후에, 고문 그룹(advisory group), IT, 웹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일반적인 활용 디자인 원칙에 근거하여, 테스트하고 수정했

다. 2012년 3월과 4월에 ILO는 초기 포커스 그룹 테스트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제 2차 웹사이트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2012년 6월 전에 테스트를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 2) 플랫폼 영역과 주요 특징: 지식공유 플랫폼의 목적은 고용가능성, 생산성, 사회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활용해온 경험이 있거나 다른 기관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국제기구와 함께, 정책결정자, 직업교육 및 연수기관, 민간기업, 학계, 양자 원조 기관의 사례연구, 연구조사, 전략 보고서를 집대성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정부, 고용자, 노동자, 국제기구가 생산성 있고 괜찮은 직업에 교육과 연수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G20 연수 전략에서 선정된 3가지 이슈(skills for youth employment, skills anticipation focusing on green jobs, training accessibility focusing on disability inclusion)를 내용으로 한 웹사이트를 곧 개설할 예정이다.
- 3) 다음 단계: 2012년 12월 말 또는 2013년 1월에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을 출범 시킴으로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원형은 민간 분야 사례, 남남 지식공유 등에 대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본 지식공유 플랫폼은 지식공유 워크숍과 면대면 학습 기회를 통해 한층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3.2.3. 사회보호 플랫폼 (복원력있는 성장 분야)

이 플랫폼은 복원력있는 성장 분야에서 전개된다. 호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가 공동 조정국이며, UNDP, ILO, WB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 1) 주요 시행 단계: 주요 파트너(WB, ILO)와의 논의와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UNDP에 의해 IPC-IG가 원형(prototype)을 개발했고, 개선하고 있다. 이 게이트웨이(gateway)의 기본 구조가 확립되었고,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접속을 하기 위해서 주요 파트너들과 연계방안이 확립됐다. 원형은 뉴욕에서 2012년 7월에 열린 사회보장 기관간 협력 이사회(SPIAC-B)에서 간략하게 발표되고, 논의했다. 커뮤니티 관리와 e-discussion 부문의 기술적 구현성은 2012년 5월 UNDP가 Rio Dialogue Platform³⁴⁾을 구축함에 따라 시연했다. 필요한 재원이

34) <http://www.riodialogues.org>

갖춰지면, 커뮤니티 관리 부문은 본 플랫폼에 통합될 것이다.

- 2) 플랫폼 영역과 주요 특징: 사회보호를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은 증거에 기반한 사회 보호 정책을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모아둔 웹기반 메커니즘이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 방식으로 구축되며, 다른 메커니즘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과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3) 다음 단계: 플랫폼의 시행을 위해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국제기구와 양자 공여국간의 사회보호에 관한 조정과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ILO와 WB가 의장을 맡는 기관간 이사회(inter-agency board)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노력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사회는 2년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참가국과 국제기구들은 Rio 온라인 Dialogue(<http://www.riodialogues.org>)에 활용된 유형의 기술적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와 연계하고, 실행, 운영, 유지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할당하기 위해 지원해나갈 것이다.

3.3. 기구별 이행 현황

앞서 2장에서 지식공유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활발하게 지식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G20 개발의제 중 지식공유 분야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3.1.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 중 G20 지식공유 분야 이행을 위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남지식협력(South-South Knowledge Exchange, 이하 SSKE)을 볼 수 있다. 남남지식협력은 지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간 파트너십을 권장한다. 세계은행은 회원국이 남남지식협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접근법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방식은 첫째, SSKE를 국가와 섹터 전략에 통합하는 것, 둘째, SSKE를 차관과 지식 운영에 통합하는 것, 3) SSKE를 용이하게 하는 세계은행의 결과 프레임워크를 통합하는 것, 4) SSKE를 적시에 지원하는 신탁 펀드를 운영하는

것, 5) SSKE를 위한 제도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식 허브'가 되는 방법과 함께, SSKE를 디자인하고 이행하는 법에 관해서 국가들에 기술원조를 하는 것 등이다. 게다가, 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조직, 양과 질적 측면에서 SSKE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폭넓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남남지식협력과 관련하여 펀드를 제공하는 남남협력신탁펀드(South-South Experience Exchange Trust Fund, 이하 SEE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ETF는 세계은행이 집행하는, 개도국간 수요 기반, 적시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기존 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신탁펀드는 2008년 남남협력을 지원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세계은행과 6개의 개발 파트너국가(중국,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이 참가한 이니셔티브로 출범했다. 그 후 신흥공여국 3개국(콜롬비아, 인도, 러시아)이 기여국(contributing members)으로 합류했으며, 2011년 10월 기준, 1030만 달러에 이르는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SEETF는 2가지의 운영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지식격차에 대해 즉각적,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한 교훈을 문서화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파트너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정규 사업에 SSC가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다른 하나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Gwin, 2011).

3.3.2. OECD

OECD는 다양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 경험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의 많은 분야에서 기여를 해왔다. G20는 OECD에게 서울 정상회의의 다년간 행동계획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 임무를 부여했다. 6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식량안보, 국내 재원동원, 개발경험 공유³⁵⁾이다.

또한 OECD는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개도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포괄적 정책 대화 플랫폼이 강화된다. 개도국과의 상호학습을 인정하고, OECD는 유사한 정책 문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증거 기반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5) 각 분야별로 OECD의 mandate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인적자원개발(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직업기술 측정 지표 개발, 국가 고용기술 전략 강화), 무역(무역역량시장접근성 강화 공약 감시, 무역 금융에 대한 추가 수요 파악), 3) 민간투자와 고용창출(민간부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측정 지표 개발), 4) 식량안보(식량안보에 대한 G20 약속 모니터링, 농산물 가격변동성에 연관된 위험 관리 및 완화 정책대안 발굴), 5) 국내 재원동원(보다 효과적인 조세체제 개발 지원), 개발경험공유(지식 경험 플랫폼 강화)이다.

4.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한국은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룬 경험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경험과 지식공유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내 다양한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관련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이 지식공유 분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G20 서울개발의제 중 지식공유 분야를 위한 방안에 더해 지식공유를 위한 방향 제시, 지식공유 사업 이행방안 제언 등으로 분류하여 제언할 것이다.

■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한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식공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칸느, 로스까보스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지식공유 분야는 주요 국제기구 및 공동조정국들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식공유 분야 외의 기타 분야에서 주류화 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형성 등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식공유를 위한 G20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중 하나로 복원력있는 성장 분야 중 사회보호층(social protection floor)과 관련하여 G20 리서치 그룹이 칸느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개도국을 위해 국가적으로 계획한 사회보호층 이행 및 확대를 위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⁶⁾.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개도국,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해 기여하였고, 그에 따른 지원 활동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인정받았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11년 한국 전문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와 정책 제언을 내린 것이며, 두 번째는 KOICA가 한

36) G20 리서치 그룹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의제와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점수화하여 발표하는데 그 중 개발의제 중 사회보호층과 관련하여 G20 국가가 국가적으로 계획한 사회보장 영역 이행 및 확대를 위해 지원한 활동을 점수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이행사항 없음), ‘0’(이행을 위한 지원은 했으나, 확대지원은 없음), ‘1’(이행과 확대를 위한 지원 있음)으로 점수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칸느 정상회의 때 제출한 최종 준수 보고서(complicance report)를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국 정부의 무상원조이자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보건의 성공적 경험을 참가국과 공유함으로써 공공 보건의 상태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관리”라는 연수 프로그램이며, 세 번째는 KOICA가 방글라데시에 지역 농가의 빈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상원조 프로젝트 완료와 관련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정책제언, 연수프로그램 등의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 사회보호층에 있어서 이행과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한국은 공동조정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2년 3월 이탈리아 튜린(Turin)에서 개최된 저개발국의 숙련지표 및 정책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³⁷⁾에서 한국은 기술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독일의 경험공유 분과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제로 한 하위 세션에서는 베트남과 모로코를 사례로 한 KOICA측의 발표가 있었고, 혁신을 주제로 한 하위 세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가 있었다. KOICA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 이슈에 대한 국가사례연구 발표에서는 KOICA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베트남과 모로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개도국 대상 지원 사업시 반영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 경제발전과 직업훈련 정책 발표에서는 한국의 직업훈련 정책변화와 성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직업훈련 정책의 현재와 성과, 미래에 대응한 향후 과제,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통해 개도국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추후 정책컨설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워크숍을 통해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숙련지표 개발 및 적용 작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경험을 통한 개발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이미 지식공유 분야에서 크고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G20 서울개발의제의 지식공유 이행을 위해 한국이 보완해나가야 할 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공유를 위해 형성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초청연수 프로그램과 기술협력사업 등의 지식공유를 시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성공사례에 기반한 지식과

37) Expert Workshop on Skills Indicators and Policies in Low Income Industries

개도국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한국이 공동조정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 구축되고 있는 ‘고용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서 한국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각각에 필요한 분야별 지식을 체계화하고, 콘텐츠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개발경험 공유를 위해 시행기관이 개발협력 콘텐츠를 전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때 한국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제시 및 전수하려는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발효과성과 공여주체 간 조화와 협력 노력에 기여하도록 지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개발경험과 사업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행기관별로 관련 지식 콘텐츠를 정리해나가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b). 그 중에서 수원국에 현지화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정리하여, 서울개발의제 분야별로 나타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콘텐츠를 제공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시행기관 및 유관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례화된 회의 및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활동을 통해 지식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공 노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식공유를 위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식공유 노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기타 국제기구 및 선진 원조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발전경험 및 개도국의 적용사례 등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지식공유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발전경험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식 관련 수요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식 공급을 중개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협력분야에서는 지식의 수요와 공급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식공유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제기구, 공여국, 파트너 국가가 개발 지식과 전문성의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개자는 기존에 축적된 정보, 지식, 경험, 역량 등을 정리해야 하며, 다양한 개발 경험에 지식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지식에 국가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G20, 2011d, Fisher, 2011). 한국은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기대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지식공유 분야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진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의 공급을 조율하여, 적시적소에 지식을 제공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행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은 서울개발의제 중 지식공유 분야가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우선 남남 및 삼각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남남 및 삼각협력의 우수사례 보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비한 실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수사례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과 협력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세계은행, OECD, UNDP 등의 국제기구와 JICA의 지식공유 현황에 있어서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JICA는 남남 및 삼각협력을 통해 JICA 협력사업의 성과 확산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OECD DAC 회원국으로는 스페인과 함께 삼각협력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EP, 2011). 양자협력으로 남남협력을 지원하였고, 이후 기술을 현지화한 기존 지원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도국에게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JICA가 기술 보완 및 사업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삼각협력을 통한 남남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OICA 역시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삼각협력을 통한 남남협력 지원 사례(한국-페루-알제리 3국간 알제리 씨감자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를 살펴본 바 있다. JICA의 삼각협력 동향과 KOICA의 성공사례를 통해, 향후 KOICA는 양자협력을 통해 남남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되, 기존 지원국 발전과 함께 다른 개도국으로 기술협력을 하는 남남협력 형태에 KOICA가 상호협력 촉진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삼각협력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남남 및 삼각협력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역량강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향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구축 노력 외에도 지식공유를 위한 이니셔티브, 파일럿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을 위한 G20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경험에 근거한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식공유를 위한 방향성 제언

지식공유는 한 기관의 내부적 지식공유를 비롯하여, 기관간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외부적 지식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과거 북-남으로 대표되는 일방적인 방식의 지식흐름은 중소득국, 개도국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남-남 간 상호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식공유는 과거 내부적 지식공유에 치중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외부적 지식공유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

한국은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이행해오고 있는 국제기구, 선진원조기관, 민간분야,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기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 다양한 부처들이 지식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이행해나갈 지식공유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수도 있다. KOICA의 경우 지식공유 사업 분야에 있어서 외연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개발의제 및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의 국제회의를 통해 남남 및 삼각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활용한 중개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은행은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및 글로벌 현지 사무소를 활용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개자의 역할은 그 비중과 책임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공유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구나 원조기관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우위가 있는, 또는 발전경험과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위자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지식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켜 주고, 필요한 경우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공급해줄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지식공유사업 이행방안

지식공유는 개발컨설팅,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식공유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식공유를 위한 규범 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원조 이행 기관간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공유를 위한 지식 허브(Knowledge Hub)³⁸⁾를 구축하여 사업 분야 및 활동별 지식공유 방안을 체계화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통해,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지식 허브 구축을 토대로 해외 원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지식공유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공유 사업이 단기간 동안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수원국의 삶의 질 개선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ICA의 경우 개발협력 경험을 통해 지식공유 사업을 이행해왔으며 현지사무소를 활용한 수원국의 상황 및 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38) 지식허브(Knowledge Hub)는 개발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게 구축된 기관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지식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특히 남남지식공유를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5.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분야 중 ‘지식공유’ 분야의 이행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의 전수, 관리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후에 지식공유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일방적으로 전수되던 지식의 흐름이 상호 교환 및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남협력,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가 더욱 강조되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G20 정상회의에 반영되어, 지식공유가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제공 및 활용하게 되면서, 개도국의 역량강화 증진 및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때 지식공유는 본연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개도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효과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국제기구와 선진 원조 기관은 지식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정보 격차를 줄여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관련한 내외적 노력과 지식공유 활동을 해오고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지식공유가 주요 의제로 채택된 이래 국제기구와 공동조정국을 중심으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까지 주류화하려는 목표에 따라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식공유가 이행되고 있다.

한국은 성공적인 개발경험에 대해 개도국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bridge)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지식공유에 관한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남남 및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앞서 국제기구와 JICA의 지식공유 추진 현황과 삼각 및 남남협력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DEEP 프로그램, KSP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공유 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앞서 한국이 G20 서울개발의제 중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제공, 지식 중개자로서의 역할,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우수사례 제공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식공유 사업을 위한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지식공유사업 자체의 효과성을 위해 국내 원조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식공유를 위한 지식 허브를 구축하여, 전문가 풀 및 우수 사례를 갖춘 지식공유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 더해 향후 지식공유 사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례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G20 서울개발의제의 지식공유 분야의 이행현황을 주목하여, 한국의 지식공유 분야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여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콘텐츠 구축 및 제공 방안, 지식공유 분야에 있어서 사례 및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을 통한 지식 중개자로서 기여 방안,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 등의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a) 2011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 평가결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b).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KSP 발전 방안
-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 우리나라 ODA의 개발컨설팅 사업 종합평가 연구
- 박수영 (2012). 개발협력컨설팅 ODA 사업과 공적개발원조 개선방안. KOICA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5호.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정지원, 권을, 정지선, 박수경,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외문헌〉

- Fisher, C. (2011). Knowledge Brokering and Intermediary Concepts – Analysis of an e-discussion on the Knowledge Brokers' Forum
- G20 (2010a).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Annex I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 G20 (2010b).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Annex II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 G20 (2011a). 2011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 G20 (2011b). Report on Progress on Pillar (Knowledge Sharing) of the G20 Multi-Year Action Plan, Steering Committee Meeting
- G20 (2011c). Progress Report of Pillar 9: Knowledge Sharing
- G20 (2011d).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 G20 (2012a). 2012 Progress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 G20 (2012b). Progress Report on Knowledge Sharing Pillar (Pillar 9) prepared by the OECD and the World Bank, Submitted to the G20 DWG meeting in Los Cabos, 3–5 May, 2012
- G20 (2012c). Progress Report of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DW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illar, prepared by ILO, OECD, UNESCO and the World Bank, submitted to the G20 DWG, Los Cabos, 3–5 May, 2012
- Gwin, C. (2011). Support for South–South Cooperation: Lessons from the South–South Experience Exchange Fund, a report prepared for the Government of Denmark
- KDI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OECD Development Centre (2011). Synthesis Report – Joint Workshop on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Taking Stock of Best Practices
- King, K. and S. McGrath (2004), Knowledge for Development? Comparing British, Japanese, Swedish and World Bank Aid,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 OECD(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 OECD (2011a).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OECD (2011b), Better Policies and Better Lives: The OECD at 50 and beyond
- Qureshi, Zia (2011),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20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HSE Conference 발표자료, Moscow, 2011년 4월 29일
- Ramalingam, B. (2005). Implementing Knowledge Strategi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Working Paper 244,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2010). Boosting South–South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Aid Effectiveness: Telling the Story of Partners Involved in more than 110 Cases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2011). Towards Effective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UNIDO (2008). Public Goods for Economic Development
- UNDP (2012). Summary status, mandate and functions of the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SU/SSC), 2012
- World Bank (1998).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 – Knowledge for Development
- World Bank (2003a). Sharing Knowledge to Achieve Development Goals. Pr cis. No. 234, Fall 2003,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OED)
- World Bank (2003b). Sharing Knowledge – Innovations and Remaining Challenges, An OED Evaluation
- World Bank (2011). The State of World Bank Knowledge Services: Knowledge for Development 2011
- World Bank Institute. (2011). G20 Issues Paper: Emerging Lessons on Institutionalizing Country-Led Knowledge Sharing

첨부 1. 지식공유 관련 용어 정리³⁹⁾

Knowledge Sharing:

- sharing of development models and solutions which have proven successful in one or several countries, and might be, in partnership, transferred and adapted in other/s
- direct access to valuable and hard-to-codify information on public policies for development constructed on evidence-based approaches, built on the expertise of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 a process whereby people, organizations and society as a whole, adapt knowledge generated by oth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own capacity over time as an effective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eneration of results

Technical Cooperation:

- It is often associated with actions aimed at strengthening individual and organisational capacity by providing expertise (short and long term technical assistance personnel, institutional twinning arrangements, mobilisation of Diaspora, etc.), training and related learning opportunities (peer exchange, tertiary education, etc.), and equipment.
-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technical cooperation: (1)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 which is the provision of resources aimed at the transfer of technical and managerial skills or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building up general national capacity without reference to the implementation of any specific investment projects; and (2)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IRTC), which denotes the provision of technical service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investment projects.

39) G20 (2011d).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South-South Cooperation (SSC) – exchanges of resources, technology and knowledge between and among developing countries. It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0 years. Increasingly S-SC involves a complex mosaic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and instruments ranging from one-off activities to budget support and large-scale loans.

Triangular Cooperation – an arrangement under which donor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 specific South-South cooperation programmes/projects by providing technical, financial, and material assistance. In addition, many of them support development of countries' capacity for South-South cooperation; information-sharing and "match-making"; as well as knowledge-sharing and networking among developing countries. A subset of this cooperation is trilateral cooperation which involves at least one traditional donor providing assistance to two or more partner countries engaged in South-South Cooperation.

Brokering –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capture and effectively match supply and demand of knowledge, experience and capacities with lower transaction costs.

Implementation – the ability to successfully share and transfer knowledge between relevant practitioners using a broad spectrum of approaches, tools and instruments, including study tours, workshops, video conferences, help desk support.

Quality –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results-oriented approaches to knowledge sharing to realize longer run benefits for capacity development of country institutions, and systems.

Funding – the understanding of how financial instruments can be used to promote knowledge sharing, and catalyze development effectiveness.

첨부 2. G20 정상회의 개발 및 지식공유 관련 주요 발표문⁴⁰⁾

1. 서울 정상회의

[The Seoul Document]

51. i) scale up and mainstream sharing of knowledge and experience, especially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capacity and ensure that the broadest range of experiences are used to help tailor national policies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 Knowledge Sharing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s, including through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contributes to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the most relevant and effective development solutions. We encour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World Bank, OECD and RDBs that operate knowledge sharing platforms to strengthen and broaden sources of knowledge on growth and development. We agree that knowledge sharing initiatives should be mainstreamed in each pillar in this Multi-Year Action Plan.

Actio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each of Knowledge Sharing

We request the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T-SSC) and UNDP to recommend how knowledge sharing activity, including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can be scaled up. These recommendations should include measures to broaden knowledge sources, improve brokering functions, strengthen th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and expand funding options. (June 2011)

40) G20, 2010a, 2010b, 2011a, 2011b, 2011c, 2012a, 2012b

2. 칸느 정상회의

[Cannes Summit Final Declaration-Building Our Common Future: Renewed Collec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All]

○ Development: Investing for Global Growth

69. As part of our overall objective for growth and jobs, we commit to maximise growth potential and economic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in Low-Income Countries (LICs). Development is a key element of our agenda for global recovery and investment for future growth. It is also critical to creating the jobs needed to improve people's living standards worldwide. Recognizing that development is a concern and duty to all G20 countries, our Ministers met for the first time on Development in Washington on September 23, 2011.
70. We support the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annexed to this Declaration, implementing the G20's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and call for prompt implementation of our Multi-Year Action Plan.
71. We take actions to overcome the most critical bottlenecks and constraints hampering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we decided to focus on two priorities, food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nd to address the issu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80. Consistent with the Multi-Year Action Plan agreed in Seoul, we strongly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and their effective management as the main driver for development. This includes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designing and efficient managing of tax administrations and revenue systems and greater transparency, particularly in mineral and natural resource investment. We urge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full compliance with applicable tax laws. We welcome initiativ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on a demand-led basis, in the drafting and implementation of their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We encourage all countries to join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purposes.

81. We stress the pivotal role of ODA. Aid commitments made by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met. Emerging G20 countries will engage or continue to extend their level of support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We welcome the emphasis on ensuring that poor countries benefit rapidly from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s, and agree to encourage triangular partnerships to drive priority innovations forward. We commit to rais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aid by concentrating on the highest interventions and increase the focus on concrete results and overall impact on development.
83. We welcome the upcoming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o be held in Busan, Korea (29 November–1st December 2011). The Forum will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more inclusive partnership to address development effectiveness.

[2011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 Ways of cooperation: building on the Seoul Consensus shared vision for development among G20 members

63. Our diversity and complementarity is an asset that boosts our capacity to promoting development. We embrace diversity and encourage different approaches based on each country's situation and specificities. As the G20 gathers countries with distinct experiences, we know that a "one size fits all" approach is not the answer to the development challenge. We will mainstream these rich and diversified experiences through knowledge sharing platforms and networks.
64. Knowledge sharing is a distinct too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 Sharing networks or platforms in the areas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of skills, and tropical agriculture technologies and productive systems. As our

mainstreaming effort in other pillars, our initiative in Knowledge Sharing will be guided by the best practices and principles agreed with our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

65. We are committed to promoting triangular cooperation, which can bring together different expertise and resources to deliver a more efficient answer to each country's needs. This triangular approach also facilitates the sharing of technical experience and know-how of emerging economies that have recently experimented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66. We support the efforts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through commitment on priority areas such as transparency, mutual accountability, a focus on achieving results and sustained impact on development outcomes. In this respect, we note the report on "Monitoring Progress against G20 commitments on Food Security" consolidated by 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 (AFSI)
67. We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upcoming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o be held in Busan, Korea from 29 November to 1 December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energize global momentum for MDGs and to strengthen development partnership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We expect that Busan High Level Forum on Effectiveness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paradigm of development which focuses on a more inclusive partnership and to addressing broader issues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68. We agree to build on an innovativ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that will focus on concrete and sustainable results, deepening our engagement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is a common concern and duty to all G20 countries. We strengthen our resolve to facilitate and leverage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remind the urgency with which our commitments must be implemented.

[Progress Report of Pillar 9: Knowledge Sharing]

1. reminder of the Seoul Multi-Year Action Plan
2. Progress and Results achieved
 - The UNDP, OECD, WBI and the TT-SSC submitted their final overview report according to the Multi-Year Action Plan on June 10 and the G20 DWG acknowledge their contribution.
 - The DWG recognized knowledge sharing as a distinct too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greed to scale up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 The DWG highlighted that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pattern of development.
 - The DWG recommended the mainstreaming of rich and diversified experiences through knowledge sharing platforms and networks.
 - The DWG agreed on following concrete actions for adoption at the G20 summit in Cannes.
 - G20 members' commitment to support the scaling up and improvement of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guided by best practices and principles agreed by our International partners.
 - G20 endors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sharing platforms in the areas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of skills, and tropical technologies and productive systems, in advance of the Mexico Summit. These platforms are to be developed by the respective substantive DWG pillars (VI, II and V) in coordination with the horizontal Knowledge Sharing pillar. The status and details of these initiatives can be found in the procedure notes of their respective pillars.
 - The UNDP, OECD, WBI and TT-SSC agreed on developing the following products based on the general framework of their final report, which will provide additional tools for scaling up and improving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Product	Leading IO
A list of focal points f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Knowledge Sharing	UNDP, with support from Mexico
A mapping of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in the other 8 pillars	UNDP
Guidelines to help countries set up and/or scale up their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World Bank Institute
Paper on good practices on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TT-SSC

3. Way forward

- The DWG outcom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usan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which is to be held shortly after the Cannes Summit by enriching the knowledge sharing agenda that will be discussed in Busan.
- The Knowledge sharing pillar will support and monitor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 sharing platforms in the areas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of skills, and tropical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productive systems together with pillar VI, II and V to be completed before the Mexican summit.
- The concept of a dynamic space on knowledge sharing that connects existing networks and platforms has been elaborated for the area of social protection but is pending further work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under pillar VI. This work under pillar VI can be used to showcase the potential of knowledge sharing to promote good practices, as well as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3.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G20 Leaders Declaration]

○ Meeting the Challenges of Development

63. Eradicating poverty and achieving strong, inclusiv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remain core objectives of the G20 Development agenda.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work with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ow income countries, and to support them in implementing the nationally driven policies and priorities which are needed to fulfill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beyond.
64. We welcome the initiative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to build upon the work of previous G20 presidencies, and its focus on three priorities during the Mexican Presidency— food security, infrastructure and inclusive green growth. We commend the progress achieved against our commitments in the Seoul Multi-Year Action Plan, and support the 2012 Development Working Group progress report annexed to this Declaration. We invite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to explore putting in place a process for ensuring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for G20 development actions by the next Summit.
67. We affirm our commitments too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s set out in the MDGs, and welcome efforts to contribute to this end, including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be launched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broad consensus achieved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Busan, Korea.

[2012 Progress Report of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 Knowledge Sharing

65.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Sharing (KS) activities, through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ccepting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model of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DWG agreed on supporting platforms on food security, growth with resilienc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illars. Considerable progress was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se three platforms since the Cannes Summit. More detailed presentations of the progress achieved were made in the sections of this report corresponding to each pillar. Notable progress has also been made in promoting KS in the area of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nd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notably with the launching of a platform to enhance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by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he multi-stakeholder sub groups of the OECD's Tax and Development Task Force.
66. We look forward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KS platforms on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growth with resilience, as well as those that might be suggested in other DWG pillars.
67.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by the G20 Summit in 2013 a consolidated report from the IOs working in the knowledge sharing pillar and the three platforms, assessing the progress and use of the platforms on tropical agriculture, skills and social protection, and on efforts to broaden the sources of knowledge in the various pillars of the MYAP.

연구자료 ODA연구 2012-28-283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7호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 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	페	이 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성신프린팅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SN 2093-2111